

1 개요

세 형제가 10년간 수학한 후에 큰 형은 신선이 되고, 둘째는 평양감사가 되었으나, 막내는 욕심이 많아서 구령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이다.

2 내용

세 형제가 도학을 배우기 위하여 깊은 산 속에 있는 스승을 찾아가서 10년간 공부했다. 세 형제는 각자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하고 헤어졌다. 둘째는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평양감사가 되었다. 어느 날 가마 타고 순행하다가 우연히 형을 만나서 형을 따라 산 속으로 들어가 동삼을 먹었는데, 형과 며칠 사는 동안 세상의 시간은 한 없이 흘러 버렸다. 막내는 욕심쟁이여서 구령이로 환생되어 있었는데, 큰형이 사람으로 환생시켜 주었다.

오랜만에 세 형제가 한 자리에 모이니 막내에게 복숭아 3개를 따오라고 시켰다. 막내는 아직도 욕심이 많아서 하나는 몰래 먹고, 3개를 가져와서 하나씩 나눠 먹었다. 신선이 된 큰 형은 그 사실을 알았고, 막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구령이로 돌아갔다. 평양감사였던 둘째는 형과 헤어지고 원래 자리로 돌아왔으나 몇 백 년이 흐른 뒤라 그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시 형에게 돌아와 신선이 되었다. 막내는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해서 구령이가 된채 살아간다.

3 특징

4 핵심어

구령이, 막내, 도학, 하르방, 셋놈, 삼성제, 평양감사, 동삼, 신선, 서문, 복숭아, 큰형, 삼형제, 세형제

5 원전 서지사항

구령이가 된 막내(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

6 관련 자료

구정승과 뱀아들(김영돈·현용준·현길언, 《제주설화집성(1)》,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, 1985)